

LG화학, 2003년 배당액 총 1281억원

화학기업 평균 배당액 주당 677원 ... 외국인 주주 관심 높아 배당확대

12월 결산 상장 화학기업들의 2003년 시가배당율이 평균 4.37%로 2002년 4.43%보다 0.06%p 감소했다. 그러나 주당배당금은 2002년 635원에서 2003년 677원으로 6.67%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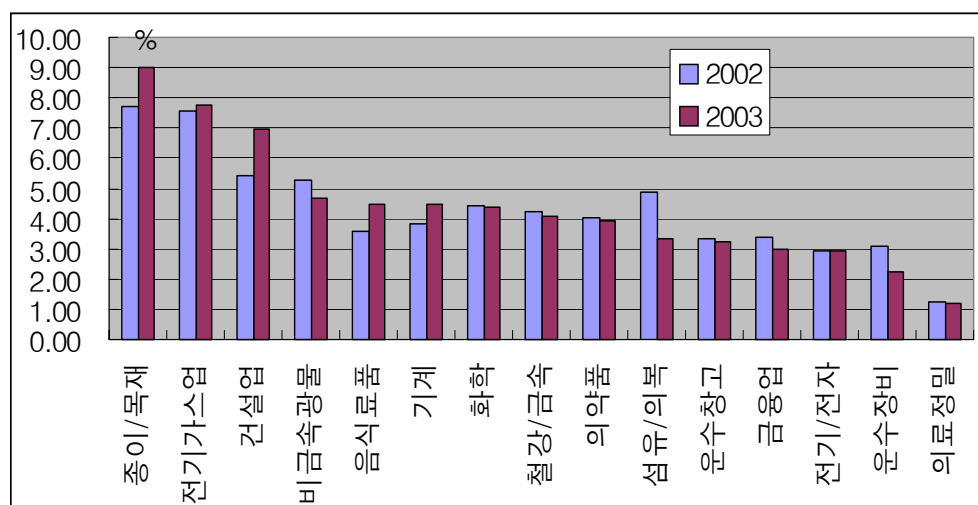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04년 2월16일까지 현금배당 결의를 공시한 화학기업 38사 중 LG화학의 배당금 총액이 1281억원으로 2002년 1100억원에 비해 1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은 배당성향도 2003년 35.40%로 2002년 31.90%보다 높아졌다.

SK의 2003년 배당금은 총 961억원, 배당성향은 1085.01%에 달했으며, 대림산업은 총 배당금 496억원, 배당성향 22.60%를 기록했다.

LG상사, CJ, 금강고려화학(KCC)은 배당금 총액이 각각 399억원, 472억원, 475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증가했다.

시가배당률에서는 조광페인트가 2002년 9.43%에 이어 2003년 8.66%로 상위에 속했고, 태림포장이 8.50%, SK가스 8.40%, 백광소재와 태경화학이 8.20%를 기록했다. 진양화학은 2002년 무배당이었으나 2003년에는 시가배당률 4.06%, 주당배당금 150원을 결정했다.

12월 결산 상장기업 시가배당률 비교(2002-2003)



한편, 국내 586개 상장기업 가운데 현금배당을 발표한 157사의 2003사업연도 배당금 총액은 4조3665억원으로 2002년의 3조3276억원에 비해 31.22%(1조389억원), 주당 배당금은 평균 734원으로 2002년 648원 대비 1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배당성향은 2002년 28.71%에서 2003년 40.64%로, 평균 액면배당률은 19.78%에서 26.94%로 각각 높아졌다.

평균 시가배당률은 4.53%에서 4.44%로 소폭 감소했는데, 배당 확대에도 불구하고 증시 활황으로 주가가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이 2003년의 부진한 실적과 상관없이 배당을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외국인의 증시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23>